

NOROO

NOROO

Autumn. 2019



시대의 요구, 필환경

Autumn. 2019

NOROO Quarterly Magazine | 2019년 가을 52호

NOROO

GREEN SURVIVAL



12



16

22



26

30

42

Special Theme

시대의 요구, 필환경

06 Column

소비에 대한 성찰, 필환경 시대의 덕목

08 Interview

아이디어로 새활용, 자원순환으로 필환경 서울새활용플라자

12 Information

작은 불편으로 큰 지구 살리기

Culture Gallery

16 Finance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

18 Office

힘난한 출퇴근길, 스마트하게

20 Taste

쉬운 채식 가벼운 한 끼

22 Travel

공정여행,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NOROO People

26 Focus on NOROO I

NOROO와 POW!WOW!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POW!WOW! X NOROO in Korea

30 Focus on NOROO II

글로벌 종자 회사로 발돋움하다
더기반 태국 법인 연구소

34 High Five

함께 발전하는 우리
2019 NOROO 그룹 대리 승진자 교육

38 Paint for Art

안녕, 위니 더 푸
Hallo, Mellow Yellow

42 Family Time

나의 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주)노루비케미칼 오주홍 주임과
(주)노루코일코팅 김기관 주임

46 News Briefing

영양제, 현명하게 쟁기기

50 1 Minute Guide

영양제, 현명하게 쟁기기

51 Behind Cut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조용걸 과장
(주)노루코일코팅 경영지원팀 문효빈 주임
칼라메이트(주) 지원팀 이선화 주임

(주)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차장
(주)노루케미칼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대리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현준 대리
(주)기반테크 기획팀 정석찬 대리

(주)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용채 대리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오재학 주임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과장

시대의 요구, 필환경

초미세먼지의 위협, 살인적인 폭염, 갈 곳 없는 쓰레기 대란, 바다를 뒤덮은 폐플라스틱 등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친환경에 보다 절실하고 필사적인 의미를 실어 이제까지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
나를 위해서 혹은 지구를 위해서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필환경' 해야 한다.
필환경은 이제 개인의 기호(嗜好)를 넘어선, 시대의 요구이다.



GREEN SURVIVAL



Column	소비에 대한 성찰, 필환경 시대의 덕목	06
Interview	아이디어로 새활용, 자원순환으로 필환경	08
Information	작은 불편으로 큰 지구 살리기	12

소비에 대한 성찰, 필환경 시대의 덕목

이스터 섬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모아이 석상으로 유명한 이곳은 1722년 부활절에 발견되었다 해서 이스터라 이름 붙여졌다. 이 섬은 현재 석상들만 우뚝 서 있을 뿐 황량하기 이를 데 없다. 숲은커녕 단 한 그루의 나무도 없다. 그렇지만 그곳도 한때 아름다운 아열대 원시림이 있었다. 우리 지구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글·최원형

이스터 섬의 숲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린 걸까? 남은 흔적으로 볼 때 모아이 석상을 세우느라 베고, 고래잡이 배를 만드느라 써버린 목재가 결국 숲을 삼켰다고 추정된다. 이스터 섬을 보고 있자면 우리 지구의 미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울 수 없다. 마지막 남은 나무 한 그루를 베기 전에 다가올 미래를 통찰할 수 있었더라면 이스터 섬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유발 하라리는『사파엔스』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 시대로 묘사하고 있다. 물건이

쏟아져 나오니 ‘이 많은 물건을 누가 사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겼다. 대량으로 생산한 물건을 대량으로 소비시키기 위해 없던 ‘필요’를 만들어야 했다. 빨대가 대표적인 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술잔에 손이 닿아 미지근해지자 손대지 않고 옛짚(straw)으로 빨아먹던 것이 빨대의 시작이었다. 없다 해도 굳이 문제가 되진 않았을 물건이다. 유행을 계속 바꾸면 계속되는 소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게 패스트 패션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제품이 고장 나도록 계획된 진부화도 추가되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라며 환

호했다. 게다가 광고가 가속화를 돋는다. 도무지 우리는 광고의 흥수 속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광고를 접하면 금세 설득이 된다.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있으면 폼 날 것 같은 물건이 넘쳐난다. 광고가 들려주는 필요에 끌려가는 삶을 살면서 행복해한다. 오죽하면 한 아웃렛 매장은 영업을 시작하는 11시를 행복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우리의 풍족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삶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소비한 뒤 남겨지고 버려진 쓰레기의 반격은 우리의 행복한 삶에 포함되지 않은 변수이다. 고갈의 위기에 처한 자원도 마찬가지이다.

북태평양 미드웨이 제도에는 태어난 지 고작 몇 개월밖에 안 된 앨버트로스 새끼들이 비실거리다 죽어간다. 새끼를 키우려는 본능에 충실한 어미 앨버트로스는 자신이 열심히 거둬 먹인 게 플라스틱 조각이었다는 걸 알 리 없다. 우리가 버린 페트병 뚜껑이며 플라스틱 라이터 등 플라스틱 쓰레기로 뱃속이 꽉 찬 채 사체가 돼버린 어린 앨버트로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까운 어느 미래에 인류의 모습이 그러할 것이라고. 해양은 물론이거나 와 극지방에 이르는 전 지구의 토양, 지하수, 대기까지 미세 플라스틱에 전 방위적으로 오염돼 있다. 합성섬유를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쏟아져 나온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무게(5g)만큼 섭취한다는 보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까? 우리가 쓰고 버린 것들의 역습은 이미 시작되었다.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자 당장 나라마다 쓰레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재활용으로 둔갑시켜 필리핀에 보냈던 우리나라 쓰레기가 되돌아오는 국제적인 망신을 올해 겪기도 했다. 전국에는 쓰레기 산이 널려 있다. 쓰레기가 넘치는 상황이지만 소비자 중 과연 몇이나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까?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라는 선형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과연 쓰레기 문제를 풀 방법이 있을까?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가 발표한 2019년 대한민국의 지구생태용량 초과일은 4월 10일이었다. 4월 11일부터는 미래 세대의 뜻을 가져다 쓰는 셈이다. 미래 세대의 마지막 나무 한 그루를 우리가 어느 순간 가져다 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100억에 이른다는데 지구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현명하게 쓸 것인가? 어떻게 숲을 지켜갈 것인가?

해양쓰레기의 최종 종착지가 결국 인간의 몸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8년 10월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며, 2025년부터는 플라스틱 병의 90%가 재활용되도록 의무화된다. 유럽연합에 자극받은 캐나다도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대신 텁블러 공유 시스템을 갖춘 미국 콜로라도 주의 ‘베셀웍스’는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유기농 기업인 ‘에오스타’는 포장재 쓰레기를 남기지 않으려 레이저로 직접 채소에 필요한 내용을 새기는 기술을 선보였다. 재활용을 고려한 순환 시스템이 물건을 생산할 때부터 갖춰져야 한다. 동시에 소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이러한 성찰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이다.

최원형

환경 생태 작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소장, 국가기후환경회의 피해예방위원회 위원, 서울시 에너지정책위원회 교육 시민소통 분과 위원, 전 KBS, EBS 방송작가, 『세상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 『도시에서 생태감수성 키우기』 등의 저서가 있다.





아이디어로 새활용, 자원순환으로 필환경

서울새활용플라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업사이클, 즉 새활용에 대해 누구나 배우고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이다. 이곳은 서울시가 폐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발표한 '자원순환도시 서울시 비전 2030'에 따라 2017년 9월 5일 개관하였다.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는 재료의 기증과 수거, 가공,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새활용의 모든 과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입주 기업과 공방들은 지금까지 대략 우유팩 3만 장, 자동차 가죽 시트 260톤, 유리 공병 2만 개 등의 폐자원을 지갑, 가방, 조명들로 새활용해냈다. 국내 곳곳의 지자체는 물론 홍콩, 태국, UAE, 덴마크 등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곳을 찾는다. 새활용을 넘어 새활용까지,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주기를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활용은 무엇이고 필환경에 어떻게 작용할까. 서울새활용플라자 최병욱 흥보 담당 선임에게 직접 들어본다.

Q .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어떤 곳입니까? 새활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 새활용은 영어 '업사이클링(Upcycling)'에 대응하는 우리말입니다. 자원순환의 주기를 늘리는 방법에는 폐자원에 탄소 에너지를 들여서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리사이클링과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다른 가치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으로 번역되지만 업사이클링은 정확히 번역할 단어가 없었지요. 이에 '새활용'을 착안하였고, 저희 플라자 건립과 함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에 등재하였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시민들에게 새활용 문화를 널리 확산하는 시민 교육과 새활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주 기업 인큐베이팅, 새활용 정책에 대한 국제 표준 수립 및 정책 수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전체가 연결된 환경 문제에는 국제 협력 활동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 자원순환 주기를 늘리는 것이 새활용의 목적이군요. 자원순환이 환경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A . 하나의 자원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고 다시 사용하여 낭비를 막습니다. 낭비가 없어야 쓰레기 배출량



이 줄고 자원을 보존하며 환경을 보호하게 됩니다. 사실 비용 면에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새 원료로 새 상품을 만들고, 사는 게 훨씬 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에게 더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을 감수해야 내일의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어요.

Q . 그렇다면 자원순환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 국가의 노력은 각각 무엇일까요.

A . 개인으로서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불편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 보호의 가치까지 함께 구매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단 뜻이지요. 새활용에는 새 원자재로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가 요



SEOUL
UPCYCLING PLAZA



구됩니다. 가격도 상승하고요. 그렇게 탄생한 제품을 자원순환이라는 가치로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양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약하나마 나 자신에서부터 환경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체가 함께 할 때에야 비로소 환경 보호의 효과가 나타나기에 나 한 명의 분리수거, 폐트병 하나의 새활용이 무슨 소용인가 싶겠지만 그 한 명 없이는 전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제품 생산 시 환경에 대한 비용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또한 새활용 전문 기업은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고민해야 합니다. 투자를 받고, 이윤을 내고, 인력도 키워나가야 하지요. 여기에

자원순환 방법을 제도화하고 시민과 기업을 설득하여 자원순환율을 끌어올리는 국가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노력이 강제된다고 바로 작동하진 않습니다. 특히 새활용은 자율적 참여여야 하기에 저희는 새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새활용 제품의 판로를 확장해 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 자원순환 과정에서 또 다른 자원소모도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요.

A . 리사이클, 즉 재활용은 눈에 잘 드러납니다. 철,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모아 씻고, 녹이고, 다시 만들죠. 이렇게 녹이고 재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많은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자원 소모가 불가피하며 게다가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도 배출됩니다. 그렇다고 재활용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새활용이 유일한 대안도 아니고요. 플라자 지하 1층의 작업장에는 벼려진 옷, 장난감, 도서 등이 매일 40톤가량 들어옵니다. 일부는 선별하여 재판매하고, 일부는 소재화하여 새활용 재료로, 그리고 나머지는 산업폐기물 청소도구 등으로 사용합니다. 자원순환에는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소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 발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업무 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한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 작년 10월,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 일행이 서울새활용플라자를 방문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둘러본 뒤 저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외

교부에 요청하여 지난 2월 한·UAE 정상회담 프로그램의 하나로 '폐기물 재활용 정책 사례 및 응용에 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산림자원과 수자원이 부족하고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새활용을 위한 저희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정책으로 활용된다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Q .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놓치면 안 될 활동을 하나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A . 지하 1층의 소재은행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활용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산업화를 위한 안정적인 소재 공급을 돋는 곳으로, 폐자원 소재를 기증하거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도 가능하고요. 소재은행 현장에서는 기증된 자원을 소재별로 분해 수거할 수 있는 '소재 구조대'를 운영 중입니다. 누구나 자원순환 주기를 늘리는 데 즐겁게 참여하는 뜻깊은 작업이 될 것입니다.



최병욱 서울새활용플라자 홍보 담당 선임

최병욱 선임은 새활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가치 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서울시 곳곳의 기존 재활용 사업장에 새활용 문학 교육과 수리·수선 사업, 새활용 제품 판매를 확대해 새활용 문화를 전파할 예정이다. 온라인 매장도 계획 중이다.





작은 불편으로 큰 지구 살리기

“오늘의 불편을 감수해야 내일의 불행을 막을 수 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말이다. 지금 벌어지는 각종 환경오염 역시 과거가 당장의 편리를 위해 미뤄왔던 불편이 만든 불행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불편에 도전하자. 작은 실행으로 큰 지구를 지키자.

쇼핑은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상도동을 지난다면 꼭 들러볼 가게가 있다. 장바구니는 필수이다. 친환경 제품의 편집샵이자 카페이기도 한 제로웨이스트(zero-waste)샵 ‘지구’에는 제품을 담아 주는 비닐봉지는 물론 제품 자체에도 포장이 없다. 견과류는 비치된 종이봉투에 원하는 중량만큼 담고 과일도 필요한 개수만 장바구니에 넣으면 된다. 끓음 포장이 없으니 낭비 없이 사게 된다는 것도 장점. 그 외에도 천연 수세미, 스테인리스 스트로와 글라스 스트로, 면 손수건 등을 판매하며 환경 이슈에 대한 클래스도 비정기적으로 연다. 텀블러 휴대로 대폭 할인해 주는 커피를 마시며 비치된 책만 읽어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쑥쑥 올라가게 되는 곳. 지구의 제품은 온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다.(www.instagram.com/zerowaste_jigu)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 대신 텀블러를 빌려 주는 연희동의 보틀팩토리(www.instagram.com/bottle_factory), 지구와 같은 제로웨이스트 그로서리 겸 카페인 더피커(thepicker.net), 플라스틱 제로를 고집하며 케이크 포장도 고객이 대회용 용기를 직접 지참해야 가능한 연남동의 얼스어스(www.instagram.com/earth_us) 등도 이용해 보자. 친환경 활동은 다소의 불편을 감수할 만큼 매력적이란 것을 알게 된다.



ZERO-WASTE
SHOP



SHAMPOO
BAR

샴푸통 대신 샴푸바

가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는 포장에 쓰였던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 큰 부피를 차지하는 것이 샴푸통, 세제통 등 각종 플라스틱 통이다. 어떻게 하면 이 플라스틱을 우리 집에서, 지구에서 내보낼 수 있을까? 주로 종이포장으로 유통되는 고체 세제가 답이 될 수 있다. 과도하게 사용되어 물을 오염시키기도, 세척 부위에 남기도 하는 액상 세제의 문제도 해결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직접 농사지어 수확한 작물로 천연비누를 만드는 ‘동구밭’의 플라스틱 프리 샴푸바와 린스바, 설거지워싱바를 추천한다. 특히 멸종위기 동물비누 만들기 DIY 키트는 아이와 함께 비누를 직접 만들며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제공한다. 직접 만든 비누라 아이가 손을 더 자주 씻게 되는 건 덤이다. 바질 비누, 페퍼민트 비누, 오이가지 비누 등 종이에 싸인 다양한 비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없애고 얼굴에 윤기도 더해줄 것이다.(www.donggubat.com)



SMALL, SLOW, SUSTAINABLE, SOCIAL LIFE

쓰레기와 함께하는 플로깅, 비치코밍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이 한국에도 상륙했다. 플로깅은 스웨덴어인 ‘plocka upp(이삭 줍다)’와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의미한다.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데다가 참여가 쉬워 SNS를 통해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깅 동호회를 중심으로 번져 나가며 자자체나 학교, 각종 단체의 친환경 행사 활동으로 다양하게 기획되어 이제는 ‘줄깅’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졌다. 쓰레기를 주우며 스쿼트나 런지 자세가 수시로 추가되기 때문에 달리기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며 운동 효과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플로깅의 해변 버전으로는 비치 코밍도 있다. 해변(beach)을 빗질(combing)하듯이 쓰레기를 주워낸다는 뜻의 비치 코밍은 단독 행사로도 자주 개최되지만 업사이클링 활동과 연계되기도 한다. 파도에 마모된 유리조각으로 예쁜 소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비치코밍으로 모아진 유리조각을 공예 소재로 이용하는 제주도의 예술단체 ‘제주 도좋아(jaejudojoa.com)’는 비치코밍 활동과 함께 유리공에 워크숍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바다유리’라 이름 지은 업사이클링 액세서리로 편딩도 하고 있으니 눈여겨보자.

이처럼 환경 보호 활동은 여가로, 레저로, 아트로 이어지며 우리에게 즐거운 손짓을 하고 있다. 손에 봉투 하나 들고 둘루랄라 거닐어 보자. 쓰레기가 보석이 될 수 있도록.

PLOGGING & BEACHCOMBING



버릴 것 없는 SSSL, 쓸 만한 식단

쇼핑을 넘어서 일상으로 제로웨이스트를 들여오고 싶다면 <매거진 쓸>이 좋은 동행자가 되어줄 것이다.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란 낭비를 막아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로, 물질적인 소비 대신 경험의 시간을 늘리고 소유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느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삶이다. <매거진 쓸>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이야기를 담은 친환경 잡지이다. ‘쓸’은 쓸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small, slow, sustainable, social life라는 뜻을 포함한다. 2018년 창간해 포장 없는 일상, 일회용 컵, 손수건 등에 대해 다뤘으며 지난 8월에는 ‘버릴 것 없는 식탁’이라는 주제로 5호를 발행, 음식물 쓰레기의 이모저모를 소개했다.

구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현명한 보관법, 낭비 없는 조리법을 소개하며 음식의 소비 구조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낭비를 조명한 <매거진 쓸> 5호는 나의 식탁을 점검케 한다. 구독 후엔 음식물 쓰레기통은 물론 장바구니도 조금은 혈腥해지지 않을까.



CULTURE GALLERY

매일의 출근길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내일의 식탁은
조금 더 프레시하게,
작은 변화를 즐겨 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 우리집도 준비해야 할까?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의 증여세 신고 건수는 역대 최다인 약 14만 5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증여세 신고대상 재산가액은 약 27조 원으로 10년 전의 약 7조 원에 비해 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대기업 또는 재벌기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 우리 집은 괜찮을까?

글·김조경

선택적 증여가 유리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대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두 세금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즉 대가를 받지 않고 이전되는 경우에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납부하게 되고 최고세율이 50%에 이르는 세율구조는 동일 하지만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증여세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생전에 준비하는 증여세 절세 방법부터 알아보자. 상속과 증여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재산을 전부 상

속하는 것보다 일부를 사전 증여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며느리, 사위 등)은 1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재산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첫째, 사전에 증여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선택해 현재 가격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은 사망 시 존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

둘째, 증여실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시기가 저점일 때를 선택해 증여하는 것이다. 특히 주식 평가액이 낮아지는 불경기나 부동산 불황기를 잘 이용하면 적은 증여세로 향후 증여재산이 크게 불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속은 사망 시점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본인이 시가를 관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증여는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은 물론 손자·손녀, 사위·며느리 등에게까지 그 범위를 넓힐 수 있으므로 과세가액을 분산할 수 있다. 반면 상속은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넘어가므로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절세

하지만, 위와 같은 사전증여가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시한부 생명인 경우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는 없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전증여의 효과는 크게 없거나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어차피 상속 인적공제 등으로 상속세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미리 증여세를 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금액이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최대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되더라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수증자가 된 배우자가 다시 자녀 등에 대한 상속을 대비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상속세 절세컨설팅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의 절세 뿐 아니라 상속 받은 재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는 경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다.

생전에 부모님을 동거 봉양한 효자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던 시가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어떨까?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의 경우 10억 원 중 5억 원의 상속세 일괄공제를 제외한 5억 원에 대해 약 9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부모)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에 대한 재산가액의 80%나 5억 원 한도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시가 1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동거주택상속공제 5억 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금액]

	구분	상속세	증여세
1차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원	
추가 공제	배우자공제	최대 30억 원	6억 원
	자녀공제	인적공제 5천만 원	5천만 원
	영농상속공제	최대 15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5억 원	

* 수증자는 일차적으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세율을 계산한다. 그 후 배우자공제나 자녀공제, 영농상속공제 등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험난한 출퇴근길, 스마트하게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은 출근 시 48.1분, 퇴근 시 53분으로 총 1시간 41분이라고 한다. 한 시간 가까이 만원버스나 지옥철에서 시달리고 나면 아침부터 체력이 방전되고 만다. 출퇴근길을 좀 더 짧게 줄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는 없을까?



나만의 버스, 모두의 버스

버스가 저 멀리 보일 때부터 정류장에는 모종의 긴장감이 감돈다. 예비 승객은 버스가 어디쯤 정차할 것인가 가능하여 재빨리 자리를 잡되 변화무쌍한 버스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면 잔걸음을 지속해야 한다. 줄을 서야 하는 버스라면 새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간격을 적당히 조절해야 함은 물론 버스카드를 대기 직전, 자리가 남았는지 내부 상황을 재빨리 스캔해야 한다. 물론 이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의 사치스러

운 이야기다. 출근 시간은 빠듯하고, 이미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이 승객을 가득 채운 차량을 몇 대나 보낸 초조한 순간에는 이번 버스에 인정사정없이 몸을 들이밀 수밖에 없다. 옆 사람에 대한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내 영혼도 잠시 떠나보낸 몸이 그야말로 짐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다.

기사 딸린 자가용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자리 걱정, 타인의 몸과 부대질 불쾌감 없이 최소한의 우아함과 인간다움으로 버스를, 혹은 전철을 타고 싶다. 아침부터 타인과 신경전, 육탄전을 벌이고 싶진 않단 말이다. 이런 간절함에서 탄생한 서비스가 있다.

<모두의 셔틀>은 동네별 출근 버스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이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나에게 맞는 출근길을 찾아 운행 중인 모두의 셔틀버스에 합승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원하는 출근길이 없다면 직접 출근길을 제안, 운행을 개설하자. 비슷한 출근길을 원하는 사람이 모이면 시범운행이 시작된다. 회원 수에 따라 경로 및 탑승, 하차 장소가 조정되고 버스 기사가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버스보다 최적의 코스로, 택시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 달의 출근을 보장해 주니 환승 없이, 영혼 탈출 없이, 꿀잠 자며 출근할 수 있다. 비슷한 서비스로 <꿀버스> 앱도 최근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스트 마일엔 마이크로 모빌리티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는 직장인은 한 가지 교통수단만 이용하는 직장인에 비해 출근길 피로도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출퇴근길 환승 시간을 줄이면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는 말! 이것이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필요한 이유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는 목적지까지 남은 마지막 1마일을 위해 이용하는 최종 이동수단을 뜻한다. 보통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전동휠 등 근거리, 중거리 주행이 가능한 전동형·초소형 이동수단, 즉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로 이용된다. 하지만 아무리 초소형이라도 환승을 줄이겠다고 버스나 지하철에 전동킥보드를 품고 탈 수는 없는 법. 편리한 출근길을 위해 다양한 공유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으니 눈에 띈다면 주저 말고 이용해 보자.

<킥고잉>은 출시 10개월 만에 1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이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근처 킥고잉을 찾고 QR 코드를 스캔해 이용하면 된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꽉 막힌 차 옆을 쟁쟁 달리는 상쾌한 기분이 다시 킥고잉을 찾게 한다. 현재 강남, 송파, 마포, 여의도, 분당(판교), 부산 센텀시티, 상암 DMC 등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이용이 끝나면 서비스 지역내 아무 데나 자유로이 주차하면 된다.

전기자전거인 <카카오타이크>도 전용 앱을 통해 지도에서 찾아 이용하고 서비스 지역 내리면 어디든 주차하는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직은 경기도 성남, 인천 연수구, 전주시 등으로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대신 서울시의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는 어떨까? 11월부터는 전기자전거 버전의 따릉이도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언덕길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따릉이는 전용 거치대에 주차해야 한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고고씽>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를 모두 서비스한다. 특히 고고씽은 이용시간이 새벽 2시까지이고 일반 자전거의 경우 30분까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 편의를 높였다. 이용 가격은 기본 10분에 1,000원 선이다.

이러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안전이다.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헬멧 착용, 운행 전 기기 상태 자가 점검도 필수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로 분류되기에 인도나 자전거전용도로로 달리는 것은 불법이며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행하지 말아야 한다.

so S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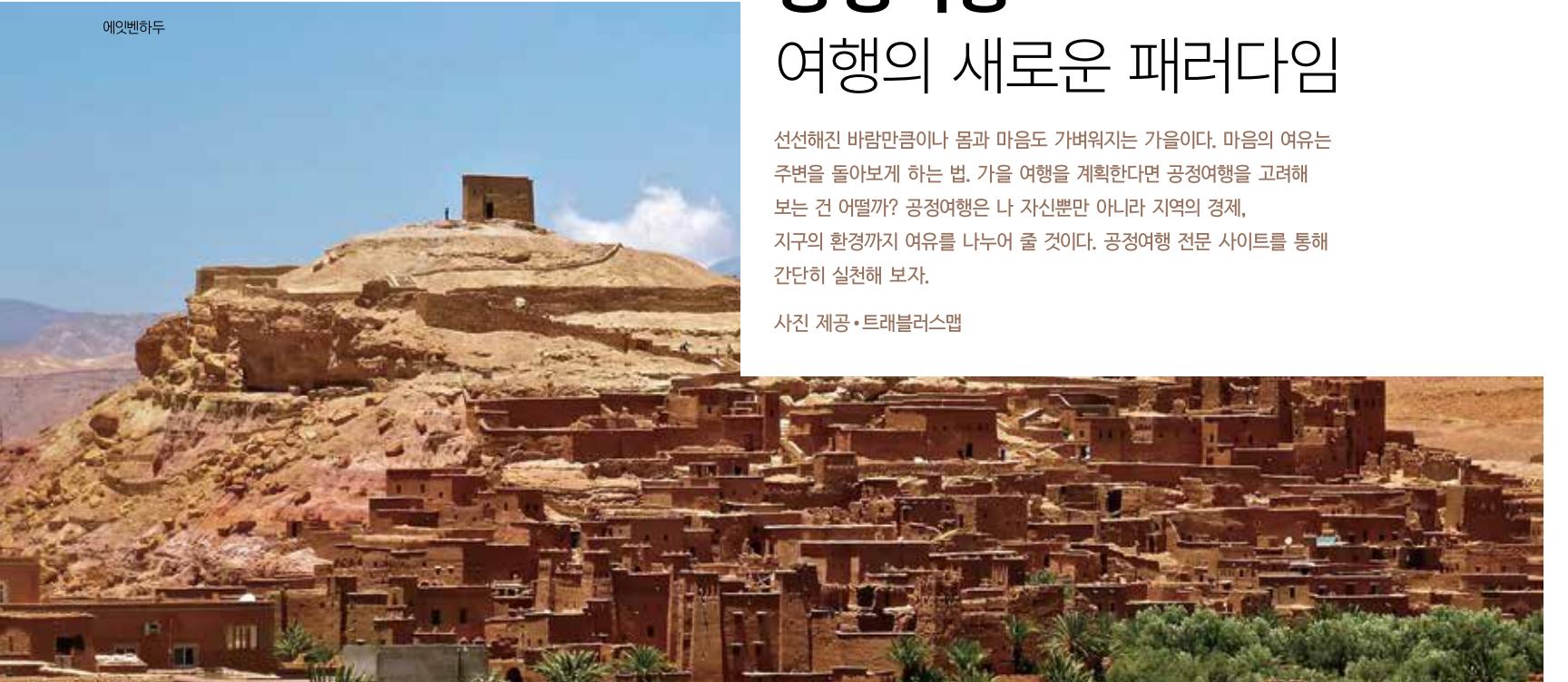
Fair Travel

공정여행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선해진 바람만큼이나 몸과 마음도 가벼워지는 가을이다. 마음의 여유는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법. 가을 여행을 계획한다면 공정여행을 고려해 보는 건 어떨까? 공정여행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제, 지구의 환경까지 여유를 나누어 줄 것이다. 공정여행 전문 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실천해 보자.

사진 제공•트래블러스맵



오롯이 나를 위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여행. 그런데 여행을 즐기면서 더불어 지구촌 경제와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 타인을 위해, 환경을 위해 뭔가 한다는 것은 큰 마음을 먹어야만 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쉬울 수도 있다. 조금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공정여행의 포인트는 '어디로'가 아니라 '어떻게' 여행하는가에 있다.

공정여행이란 여행자인 나 자신만이 아니라 여행지의 현지인까지 행복한 여행이다. 글로벌호텔 체인이나 대형 여행사의 자본으로 꾸려 놓은 음식점이 아닌 현지인이 직접 운영하는 로컬 숙소와 가게를 이용하고,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기념품이 아닌 현지의 수공예품을 제값으로 구매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호하며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공정여행이다. 그러나 일반 여행자가 현지 여행사를 미리 접촉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 여행사들이 여행자와 현지의 경제,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 공정여행 상품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 보자. 공정여행 사회적 기업인 '착한여행(www.goodtravel.kr)'은 에코 여행, 마을 여행, 허니문 여행 등 다양한 테마로 패키지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여행'을 지향하는 '트래블러스맵(www.travelersmap.co.kr)'을 통해서는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공정여행을 떠날 수 있고, 국내 전문 여행사인 '시골 여행 맷조이(www.matjoy.kr)'에서는 지역 주민이 만드는 로컬 여행과 시골 민박집을 만날 수 있다.

'트래블러스 맵'에서 제공하는 공정여행 중 하나인 <사막의 푸른 별, 모로코>를 살펴보자. 아름다운 중정과 루프탑이 있는 모로코의 전통 가옥 리아드에서 느긋한 휴식을 취하고 사하라 사막에서는 유목민 체험을 할 수 있다. 글래디에이터 등 수많은 영화가 촬영되었던 에잇벤헤드의 베르베르 원주민들과 전통춤, 음악을 만끽하고 별이 쏟아지는 하늘 및 천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현지에서 직접 제작된 수공예품을 만나는 것도 작은 기쁨이다. 여행은 현지 문화와 역사를 느끼고 여행지에 최선의 기여를 하며 자연에는 최소의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게 트래블러스 맵의 소개이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다. 현지인의 사진을 찍을 땐 허락을 구하고, 구걸하는 아이에게 적선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자칫 아동 착취를 돋는 일이 될 수 있다. 보호자의 허락 없이 어린아이에게 선심성 선물을 주는 것도 해로울 수 있다. 희귀 동물을 이용한 기념품 등은 사지 않고, 동물을 학대하는 쇼나 체험 상품은 이용하지 않는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와 물 등의 자원을 아껴 쓰며 간단한 인사말은 미리 현지어로 익혀 두자. 인사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오가는 멋진 공정여행이 될 것이다.



사진 제공

1, 2, 4, 5. 착한여행

3. 명준욱(한국관광공사)

때 묻지 않은 휴양지, ‘별 총총 룸복 여행 3박 5일’

유명한 휴양지 발리와 불과 30분 거리에 있는 인도네시아 룸복 섬은 아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느 휴양지 못지 않은 풍부한 여행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이 패키지에는 환상적인 별빛을 경험할 수 있는 린자니 1박 2일 트레킹 코스와 렌트카로 핑크비치, 사삭마을, 원숭이 숲 등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갈리섬 스노클링 등의 해양 스포츠로 천혜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휴양지 여행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 착한여행(www.goodtravel.kr)

제대로 된 시골 여행, ‘오붓이 강릉, 너에게만 알려주는 강릉’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골하루 맛조이’를 통해 진짜 시골의 낮과 밤을 누려 보는 것도 좋겠다. ‘오붓이 강릉, 너에게만 알려주는 강릉 비밀 여행’은 여행지를 속속들이 알고 싶은 여행객에게 환영받을 패키지다. 강릉 주민인 호스트의 인솔로 서부시장과 중앙시장을 즐기고 양떼 목장, 하난설현 기념 공원 등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늑한 게스트하우스 숙박과 조식, 식사 2회, 여행 가이드, 픽업까지 전부 포함된 1박 2일의 패키지이다.

문의 : 시골하루 맛조이(www.matjoy.kr)

현지인이 되어 보는 ‘치앙마이 쉬엄쉬엄 에코 여행’

착한여행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정여행 중 하나인 <치앙마이 쉬엄쉬엄 에코 여행 3박 5일 코스>를 살펴보자. 현지 주민이 수공예품 만들기, 약초 만들기 등을 직접 가르치고 함께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풍광을 소개해 주는 ‘현지 마을 에코투어’로 여행지의 삶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다. 코끼리 보호센터를 방문해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고 개울가에서 함께 목욕하는 등 특별한 경험도 가능하다. 와로롯 시장, 님만해민 등 치앙마이 시내 구석구석을 자유로이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 착한여행(www.goodtravel.kr)



N O R O O P E O P L E

우리는 컬러로 도시를 바꾸고
종자로 미래의 농업을 바꿉니다.
우리의 컬러는 세계의 아티스트를
한 자리에 모으고
우리의 기술력은 세계로 뻗어갑니다.

POW!WOW! X NOROO

NOROO와 POW!WOW!

도시의 풍경을 바꾸다

POW!WOW! X NOROO in Korea

글로벌 스트리트 아트 그룹 파우와우(POW!WOW!)가 재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국을 찾았다. 다양한 벽화와 설치미술을 통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그들의 활동은 컬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NOROO의 비전과 맞닿아 성수동의 거리 곳곳을 변화시켰다.

파우와우 코리아, 성수동을 만나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커피 전문 체인점인 블루보틀의 한국 1호점이 성수동에 오픈했다. 많은 이들이 줄을 섰고, 안 그래도 핫하다고 소문난 성수동을 찾는 이들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성수역 계단을 내려온 이들 중 절반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여기가 왜 핫하다는 거야?’

낡고 복잡한 골목, 윙윙 기계 소리와 석유 냄새가 풍기는 공장이 뒤섞인 거리는 초행자의 발걸음을 주춤하게 만든다. 그러나 5분만 천천히 걸으면 보인다. 보호색처럼 창고의 외양을 하고 있는 카페와 스며들 듯

자리한 갤러리, 은둔자 같은 공방들이. 이것이 성수동의 본질이고 매력이다. 공장 지대인 동시에 카페거리이며 아직 ‘핫함’이라든가 ‘새 것’에 점령당하지 않아 그 거친 매력이 살아 있는, 말하자면 아직 끓는점에 달하지 않아 오히려 핫한 곳이 성수동이다. 파우와우 코리아가 2019년의 프로젝트 장소로 이곳을 고른 것도 이 때문이다.

페인트, 거리의 작품이 되다

파우와우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위해 좀더 낙후된 곳, 개선이 필요한 곳을 찾는다. 예술을 통해 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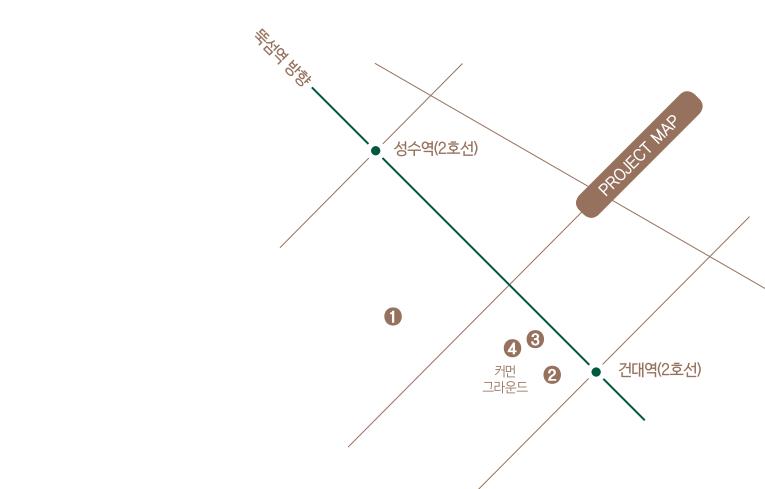
2



3



4



글로벌 스트리트 아트 그룹 파우와우(POW!WOW!)가
컬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NOROO와 함께
벽화와 설치미술로 성수동의 거리 곳곳을 변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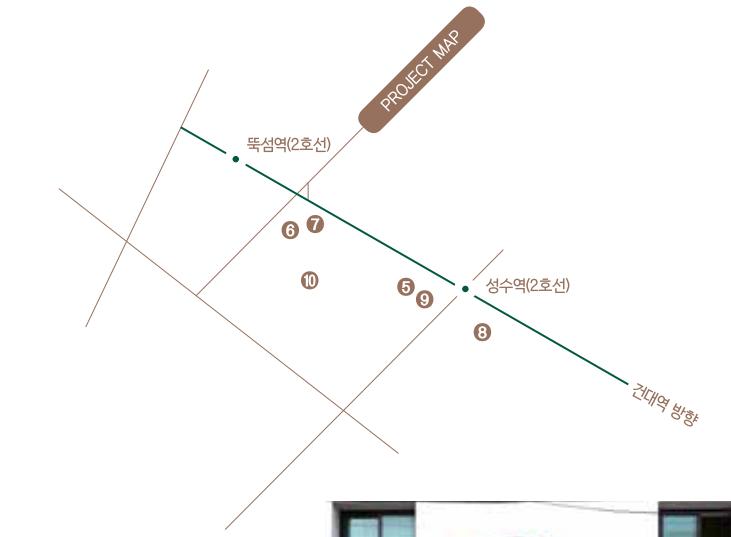
5



6



7



8
9



10

리와 풍경이, 그리고 나아가 커뮤니티가 바뀌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수동은 이에 안성맞춤이다. “성수동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 덜 개발된 덕에 오히려 더 수용적입니다. 문화적으로 좀 더 풍부하달까요.” 파우와우 코리아의 앤디 송 대표의 설명이다. 특히 넓은 벽이 많아 작업 장소를 구하기도 쉬웠다고 한다. 덕분에 파우와우 코리아 2019의 작품들을 한 번에 감상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NOROO의 후원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대입구역에서 성수역을 거쳐 뚝섬역에 이르는 약 2km의 거리에 16개의 벽화와 7개의 설치물들이 구석구석 자리하게 되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커먼그라운드의 외벽을 컬러풀하게 채운 ZEBU의 작품과 흑백의 평면적 그래픽으로 유쾌함을 담은 Joshua Vides의 벽화이다. Joshua Vides는 메르세데스 벤츠 및 펜디 등과의 협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쌓은 미국의 유명 작가이다. 단순하고 선명한 조형미를 전하는 이들의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연신 사진을 찍었다. 인근의 나이키 매장 옆 농구장에는 한국의 스트리트 아티스트인 GR1과 나이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농구 선수들의 경기 모습과 세리머니를 그린 작품이 펼쳐져 있는데 조금만 돌아 가면 Kimchi Juice라는 작가명으로 한국적 전형성에 전위성을 더한 묘한 벽화를 만나게 된다.

성수역 쪽으로 발길을 옮겨 연무장길 110 즈음을 지

날 맨 꼭 주위를 살펴보자. 세피아 톤의 부드러운 음영과 동화적 캐릭터로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Amy Sol의 작품을 놓치는 건 무척 아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마치 도깨비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Jodae의 벽화와 Hitotzuki가 인쇄소에 시원스럽게 피워낸 푸른 꽃 앞에 잠시 멈추길 권한다. 거리의 분위기가 일순 바뀌고 갑자기 무대 배경 앞에 선 듯 주위가 환기된다. 이것이 페인트가 거리를 작품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아트, 도시의 일부가 되다

“두 번째 한국 행사인 이번 작품 활동도 노루페인트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바뀌고 도

시가 아름다워지며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저희 활동의 목표입니다. 벽화는 거리의 풍경으로써 빛을 발하다가 낡고 손상되겠지요. 그것이 스트리트 아트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숙명이며 아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앤디 송 대표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POW!WOW! × NOROO in Korea>의 작품을 되돌아본다. 작가들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도시에 대한 희망은 NOROO의 컬러와 만나 새로운 풍경이 되고 변화의 단초를 만들었다. 그들은 성수동 곳곳에 걸린 전깃줄처럼, 오래된 간판처럼, 아스팔트 사이의 잡초처럼 이미 도시의 일부가 되어 있다. 핫 플레이스 성수동의 온도는 이로써 또 달라질 것이다.



글로벌 종자 회사로 발돋움하다

더기반 태국 법인 연구소

농업회사법인 더기반은 품종 개발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연구동과 하우스, 노지 등의 시설을 갖춘 해외 현지 법인 연구소를 지난해 설립했다. 첫 해외 법인인 태국 치앙마이 연구소는 다양한 R&D 협력을 통하여 동남아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하는 더기반의 든든한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의 반도체, 종자산업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이다. 그중에서도 인류의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것은 ‘식’, 즉 먹거리이다. 이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생명산업, 특히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다. 한 돈 무게의 파프리카 씨앗은 같은 무게의 금값을 상회하고 고품질 토마토 종자 1g은 금 시세의 몇 배에 이르기까지 한다. 식량의 생산량, 품질, 유통과 농자재산업, 그리고 이제는 유전자원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개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자산업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제종자협회는 2010년 406억 달러였던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2020년 1650억 달러에 달할 만큼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국 시장은 1%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벼, 보리, 고추, 양배추 등 일부 작물 외에는 종자 수출보다 수입이 큰, 해외 종자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다.

이에 NOROO 그룹은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 이념을 이어 농생명 분야의 기술 혁신으로 종자산업을 이끌기 위해 2015년 더기반을 설립했다. 더기반은 종자 국산화의 노력과 더불어 지난 2018년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태국 치앙마이에 첫 해외 법인 연구소를 설립했다. 더기반 태국 연구소는 해외

용 오이, 박과 및 가지과와 무, 배추, 양배추 등 재소 종자 육성을 통해 열대용 수출 시장을 공략하며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위한 연구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거점, 태국 치앙마이 연구소

태국 연구소의 하우스 안, 현지 직원들은 더운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에 열중했다. 푸르른 작물 사이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무장을 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은 한국의 안성연구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쉬는 시간이면 음료수로 더위를 식히는 풍경도 비슷하다. 그러나 기후와 토양은 확실히 다르다. 그 차이 때문에 더기반은 태국을 선택, 해외 법인을 세우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더불어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농업 강국 중 하나이다. 농업 인프라와 인적 자원이 잘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태국 정부 기관의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할 수 있다. 한국과는 다른 태국의 기후와 지리적 요건은 해외를 목표로 종자를 생산하고 품종을 육성하며 시장을 넓혀가는 더기반의 허브 역할을 충분히 뒷받침해 줄 것이다.

종자 주권을 지키며 종자 강국으로

최근, 인수·합병 등을 통해 덩치를 키운 글로벌 종자 기업들에 의해 세계 종자 시장은 과점화되어가고 있다. 상위 10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실정이다. 그 속에서 더기반은 국내 점유율을 높이고 동시에 세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는 비단 한 기업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을 지키고 한국인의 밥상을 보호하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삼아 종자 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더기반의 태국 연구소는 세대 단축을 통한 육종, 마커 개발을 통한 고품질 종자와 기능성 품종을 육종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적합한 채소 종자를 연구, 개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연중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시장 개척에 속도를 더해 줄 것이다. 씨앗 하나가 큰 나무를 키워내고 수많은 열매로 돌아오듯, 더기반과 태국 연구소의 노력은 NOROO와 한국의 종자산업 경쟁력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다줄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기반의 태국 연구소는
세대 단축을 통한 육종,
마커 개발을 통한 고품질 종자와
기능성 품종을 육종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적합한
채소 종자를
연구,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함께 발전하는 우리

2019 NOROO 그룹 대리 승진자 교육

2019년 NOROO 그룹 승진자 교육이 지난 7월 9일부터 25일까지 대리, 과장, 차장 승진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해당 직급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함양하고, 계열사 간의 교류를 넓혀 서로의 이해를 높이고 함께 발전하기 위한 이 교육에는 모두 96명이 참여해 직급별로 2박 3일을 보내며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그중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대리 승진자 교육 현장을 살펴본다.

대리, 미래를 바꾸는 자리

“대리는, 과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회사의 간부가 될 자격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시험해 보는 기간이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앞날이 크게 달라진다.” 서른 살의 멘토 북, 『심리학이 서른살에게 답하다』에서 대리로 진급한 후배에게 선배가 건넨 말이다. 책 속 설명처럼 대리는 ‘간부와 평사원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많아지지만 권리는 적어지고, 그럼에도 많은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며 능력을 보여야만’ 하는 자리이다. 간부의 지시를 따르며 아랫사람을 이끄는 역할에 적응하는 동시에 조직에서 핵심 실무자로 주도적인 업무 수행을 시작해야 한다. 팀의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 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만드는 데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대리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부장으로, 승진이란 언제나 그에 따른 도약을 요구한다. 2019년 NOROO 그룹 대리 승진자 교육에 참가한 이들의 표정이 진지한 것은 그 과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리 승진자 교육은 팔로워십,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업무 처리 노하우, 기획서 작성과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의 내용으로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리더십과 더불어 팔로워십

2박 3일의 교육은 오전 8시 반부터 준비된 강의로 시작되었다. ‘과업 수행’과 함께 ‘관계 관리’가 요구되는 대리 직급의 역할 수행을 위해 마련된 첫 강의는 <신임 대리의 역할 및 팔로워 리더십>. 강사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위해 소속 부서에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여 이를 극대화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리더를 보좌하는 팔로워십이 리더십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직 전체의 관점을 견지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리더를 이해하며, 리더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분명한 대안을 겸손하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좌”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예측 가능한 ‘일상적 업무’와 이와 반대인

‘돌발성 업무’, 업무의 혁신을 가져올 ‘창의적 업무’를 구분, 각 특성에 맞는 팔로워십 전략을 소개했다. 이 과정의 즉석 설문에서 교육 참가자들은 현재 ‘돌발성 업무’가 많다고 대답, 앞으로 이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공유할 수 있었다.

직무에 따라 장시간 자세가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신체 불균형과 통증을 관리하는 스트레칭 연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획서 작성 실습으로 마무리된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건강한 조직 문화 디자인, 윤리 경영, 셀프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가 구성되었다. 직장 내의 원활한 업무와 관계를 위해 서로의 입장을 인지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공감해야 한다는 것이 조직 문화 디자인의 핵심. 참가들은 조별 롤플레이를 통해 역지사지의 시각을

체험해 보기도 했다. 이어 (주)노루홀딩스의 이대희과장이 직접 윤리 경영 교육을 진행했으며 스스로 목표 의식을 고취시키는 셀프 리더십 강의에서는 몰입 전략을 통해 업무의 결과를 바꾸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교육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캠미팅을 통해 참가자들이 친목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지역, 각각의 계열사와 팀, 부서에서 모인 신임 대리들은 빽빽한 교육 중의 휴식 같은 시간을 즐기며 고충을 나누고 각 계열사의 특징 및 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다.

동료와 함께 더 높이

신임 대리들은 마지막 날에도 아침 일찍 강의실에 모여 교육 일정에 참여했다. 최고의 팀워크를 위한 레크

리에이션으로 동료와 리듬 맞춰 박수 치기를 하는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다. 팔로워십,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업무 처리 노하우, 기획서 작성과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 2박 3일간의 여러 수업 중 가장 인상적인 것을 질문하자 대부분은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조별 활동과 족구 등을 꼽았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답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된 귀한 기회였다.”, “서로의 업무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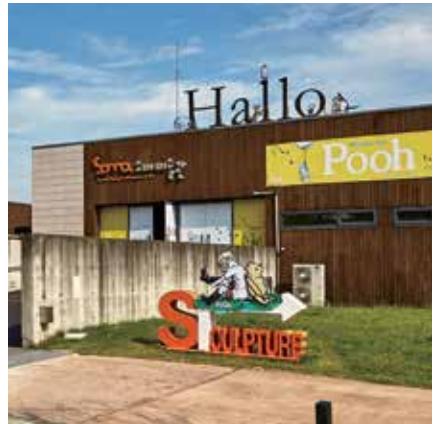
승진자 교육은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도록 돋는 발전의 도약대이다. 동시에 참가자들은 NOROO라는 이름 안에서 옆을 든든히 지키는 동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엮어진 동료애의 네트워크는 도약의 높이를 더욱 키워줄 것이다.

안녕, 위니 더 푸 Hallo, Mellow Yellow

노랑의 밝고 포근한 기운을 하나로 그려모아 꾹꾹 눌러 담고 바느질로 꿰맨다면 분명 이런 인형이 될 것이다. 동그란 귀에 약간 늘어진 불룩한 배, 뒤통거리는 걸음이 어울리는 엉덩이와 부드러운 손과 발. 100년 가까이 사랑받고 있는 곰돌이 푸는 노랑의 행복을 가득 품은 캐릭터이다. <Winnie the POOH> 전시에서 (주)노루페인트는 컬러로 행복의 메신저가 되었다.



Winnie the POOH Exploring a Classic은
위니 더 푸의 엉뚱하고도 달콤한 이야기
팬톤페인트의 맑고 선명한 컬러 안에
포근하게 채워진 전시다.



Winnie-the-POOH

작고 부드러운 노랑 곰, 푸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늘 친구를 배려하는 착하고 실수 많은 곰돌이 푸, 소심하고 겁 많은 애기 돼지 피글렛, 항상 우울하지만 상상력이 뛰어난 당나귀 이요르, 자신감은 충만하지만 말썽을 일으키곤 하는 호랑이 티거 그리고 이야기 속의 유일한 사람인 크리스토퍼 로빈 등이 100 에이커 숲에서 벌이는 크고 작은 소동을 담은 <위니 더 푸(Winnie the Pooh)>와 이를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디즈니의 <곰돌이 푸>는 많은 이에게 따뜻한 스토리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26년 초판이 발간된 이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책, 애니메이션, 영화로 변주되어 온 <위니 더 푸>의 오리지널 드로잉과 소장본, 관련 사진, 편지 등이 전시로 구성되어 런던과 애틀랜타, 보스턴, 도쿄, 오사카 등 세계 곳곳을 돌고 한국에 상륙했다. 위니 더 푸의 엉뚱하고도 달콤한 이야기가 팬톤페인트의 맑고 선명한 컬러 안에 포근하게 채워진 전시, <Winnie the POOH / Exploring a Classic>(이하 <위니 더 푸>)이다.



달콤한 노랑을 따라서

〈위니 더 푸〉 전시가 올림픽 공원의 소마 미술관에 자리를 잡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미술관 주위의 너른 잔디와 작은 숲을 끈 푸른 호수, 탁 트인 하늘은 푸와 친구들이 놀던 100 에이커 숲의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끼게 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입구의 천장에 띠워진 풍선과 우산, 명랑한 인사 ‘Hallo’에 마음도 함께 들뜬다. 입구는 푸의 컬레이자 푸가 가장 좋아하는 벌꿀의 색인 노랑이 PANTONE 14-0850 Daffodil로 꾸며져 관람객을 환영한다.

전시는 2층에서 시작해 1층으로 이어지며 5개의 방

과 영상실, 곳곳의 포토존으로 구성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곰’으로 이름 지어진 첫 번째 방에서는 푸의 역사와 유명세를 실감케 하는 다양한 상품을 볼 수 있다. 초창기 푸 인형과 디즈니의 푸 캐릭터 인형, 도자기, 각종 팝업북과 레고, 보드게임 등은 1930년대부터 이어져 온 〈위니 더 푸〉에 대한 전 세계 대중의 애정을 확인시켜 준다. 그 뒤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의 방으로 향하는 계단이 위치한다. 그가 푸 인형을 데리고 반쯤 내려온 계단 옆에 “바닥도, 꼭대기도 아닌, 내가 언제나 머무는 계단”이라고 적힌 글귀는 현실에서 동화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전시는 100 에이커 숲과 포싱보드 브릿지로 연결되며 점점 더 깊어 푸의 세상을 탐험케 한다. 100 에이커 숲을 소개하는 좁은 길은 PANTONE 18-1031 Toffee로 페인팅되어 울창한 나무 사이에서 달콤한 이야기를 꿈꾸도록 이끌고, 푸와 친구들이 시냇물의 상류에 막대기를 떨어뜨리고 얼른 하류로 내려가 누구의 것이 먼저 오는지 지켜보는 ‘푸스틱 놀이’를 재현한 방은 PANTONE 16-0639 Golden Olive와 PANTONE 11-4800 Blanc de Blanc으로 숲속의 촉촉한 이끼와 신선한 공기를 느끼게 한다. PANTONE 11-1001 White Alyssum의 포근한 화이트를 배경으로 벌들이 윙윙거리는 방에서는 미끄럼틀을 타고 기둥 안에 숨어 보자. 작은 벽장을 살짝 여는 것도 잊지 말자. 벌꿀을 향한 푸의 순진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 방이다.

푸른 하늘로 두둥실

작가인 알란 알렉산더 밀란의 간결한 단어와 삽화가 하워드 쇼퍼드의 예리한 관찰력, 특출한 데생 실력이 빛나는 원화들을 본격적으로 전시한 네 번째 방과 출판 과정 및 인쇄용 블록판, 초판 등을 소개한 다섯 번째 방은 이 전시의 마지막 코스이자 하이라이트이다. PANTONE 15-3915 Kentucky Blue의 부드러운 하늘색 안에서 쇼퍼드의 흑백 드로잉은 더욱 생생한 생명력을 보여 준다. 풍선에 매달린 푸가 본 하늘이 이런 색이었을까. PANTONE 14-1909 Coral Blush는 마지막 공간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장식하여 전시와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어 준다.

글로벌 투어로 60만 관람객을 유치했던 〈위니 더 푸〉 전시는 한국에서도 인기를 모아 전시 기간이 내년 1월 5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번 전시를 끝으로 작품들은 개인 소장가들에게 돌아갈 계획이라 오리지널 드로잉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맑은 가을, 팬톤페인트의 컬러와 함께한 위니 더 푸를 만나러 가 보자. 마음을 하늘로 두둥실 날려 보자.



나의 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주)노루비케미칼 오주홍 주임과
(주)노루코일코팅 김기관 주임

노래는 힘이 있다. 노래는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노동에 리듬을 불어넣어 주고, 여럿이 함께 불러 단결력을 키우기도 한다. 개인의 감정을 달래고, 기분을 바꾸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도 노래는 즉각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하고, 더 잘하고 싶다. (주)노루비케미칼 오주홍 주임과 (주)노루코일코팅 김기관 주임이 보컬 레슨에 참가한 이유도 이와 같다.

노래방 가는 길엔 허망을

무엇이든 그렇지만, 좋아하고 자주 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채울 곳과 덜어낼 곳을 알고 고쳐야 발전한다. 그러나 일반인이, 그것도 노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의 노래를 평가해 주는 건 고작 노래방 기계의 점수판뿐이니 말이다. 그래서 이곳을 찾았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다양한 보컬 트레이닝을 거친 이동호 코치가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컬 테크닉 및 스타일 레슨을 제공하는 브라운 사운드 보컬 스튜디오이다.

북적북적한 신림동 골목, 혼한 상가의 계단을 오르면 시원하게 트인 유리창 너머로 주변 건물들의 낡고 다정한 옥상과 파란 하늘이 가득한 브라운 사운드 보컬 스튜디오를 만날 수 있다. 이 곳의 마이크 앞에 오주홍 주임이 섰다. 코치를 받고자 고른 노래는 김범수의 <보고 싶다>. 중저음이 풍부한 오주홍 주임에게는 고음부 처리가 고민인 곡이다.



이동호 코치는 먼저 허밍으로 목을 풀어주도록 이끌었다. 그는 “흔히들 술자리 후에 노래방을 가는데, 음주와 대화로 건조해진 목 상태로 노래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라며 “노래방 가는 길에서라도 이렇게 허밍으로 준비운동을 해 두는 게 좋다.”라고 팁을 전했다. 이어 오주홍 주임이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자 본격적인 코치가 시작되었다. “가사에 따라 볼륨 조절을 해 주세요. 필요한 곳에 제대로 힘을 줄 수 있도록 시작이 1이면 2.5, 3.5 순서로 고조되도록 조정합니다.”, “첫 음에 호흡을 다 쓰지 마세요. 발성이 거칠어집니다.”, “고음에서 성량이 너무 커질 땐 마이크를

조금 멀리 떼세요. 그럼 듣는 사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 세심한 조언으로 다듬어진 노래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한 시간의 레슨을 마치며 오주홍 주임은 “김동률의 잔잔한 노래나 <미생>의 OST를 부른 이승열의 노래가 어울릴 것 같다. 보통의 높은 노래를 부를 땐 키를 과감히 낮춰 부르는 게 좋다.”는 조언을 받았다.

많이 듣고, 자주 따라 부르고

다음은 김기관 주임의 차례. 일주일에 두 번은 노래방에 들를 정도로 노래를 좋아하는 그는 박효신의



<바보>를 선택했다. “이 노래를 하다 보면 호흡이 달려요. 가성 내는 것도 쉽지 않고요.”라는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일단 김기관 주임의 노래를 들어본 이동호 코치는 한 소절 한 소절 짚어가며 솔루션을 제시했다. “음역도 좋고, 고음도 잘 나오네요. 아쉬운 건 박자인데, 박자감은 있는데 이 곡에서 잘못 세팅된 것 같아요.” 이동호 코치에 따르면 노래방의 자막 변화에 따라 부르다 보면 박자감을 몸에 익히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는 박자를 맞춰 주며 소리를 길게 끌어내야 할 부분과 잠깐 끊어 숨을 쉬어야 할 지점, 그 숨을 나눠서 배분하는 구간 등을 제시하여 호흡 문제에 답을 주었다. 가성을 따로 떼어 연습하자 목소리가 가볍게 바뀌고, 자음에 힘을 주니 작은 성량으로 깔끔하게 발성되는 등 김기관 주임의 즉각적인 변화도 놀라웠다.

“내 노래로 만들려면 일단 많이 듣고, 따라 부르시는 게 좋아요. 아침 화장실에서, 출퇴근길에서 가급적 자주 원곡을 들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따라 흥얼거려 보세요. 노래할 때는 내 목소리 외에 반주에도 집중력을 나눠 주시고요.”라는 도움말이 곁들여졌다.

레슨을 마치며 두 주임은 “쉽지 않았지만 내 목소리의 특징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시간”이라고 평하며 “오늘 배운 걸 생각하며 부르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들처럼 앞으로 노래방에 갈 땐 이 날의 조언을 떠올려 보자. 허밍으로 목을 풀고, 호흡과 성량을 조절하며 때로는 마이크를 멀리 두는 ‘マイク テク닉’까지 써 보자. 신나게 부르고 즐거이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브라운 사운드 보컬 스튜디오

미국의 Vocology in Practice의 Authorized Instructor로 활동하는 이동호 보컬 코치의 스튜디오로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발성과 노래에 대한 어려움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전문적 도움을 주고 있다. 수업이 녹음·제공되기 때문에 레슨 후 개인 연습에도 용이하다. bsvocalstudio.com



노루페인트 2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제32주년 기념식 및
제33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홍석천의 Oh! 마이로드> 경리단길 개선사업에 팬톤페인트 지원



쿨루프 페인트 캠페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업으로 선정

(주)노루페인트

노루페인트 21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

노루페인트(대표 진명호)는 노동조합(위원장 박연수)과 임금 협상을 끝에 7월 12일 '21년 연속 무분규 임금 협상 타결'을 이루었다.

노루페인트 노동조합은 이번 임금 협상을 위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고 한국노총·화학연맹의 지침과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차우치거나 모자라는 등 사내 직원 간에 빚어질 수 있는 불균형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무엇보다 중점을 두어 임금 협상 과정을 진행하였다.

박연수 노조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및 국내 소비지수 하락 등 국내외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도 큰 결정을 해 준 진명호 대표님과 사측 교섭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으며 "노루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새로이 변화하고 혁신하며 믿음과 존중이 있는 진정한 노동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제32주년 기념식 및 제33년 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지난 8월 21일, 노루페인트 노동조합은 설립 3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제33년 차 정기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최대호 안양 시장, 김용목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등 서울과 경기 지역의 단체장과 노동조합 위원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노루페인트 노동조합의 설립 32주년을 축하하였다. 특히 올해는 노동조합 제12대 집행부가 3년 차를 맞는 해이기도 하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노동조합 집행부는 믿음과 참 가치가 존중되는 진정한 노동을 위해 열심히 전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또한 노루페인트 노동조합의 박연수 위원장은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조합원 여러분과 언제나 직원들 마음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사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홍석천의 Oh! 마이로드> 경리단길 개선사업에 팬톤페인트 지원

노루페인트가 tbs의 방송 프로그램인 골목 상생 프로젝트 <홍석천

의 Oh! 마이로드>에 팬톤페인트를 후원하여 경리단길 미관 개선사업을 위한 벽화 진행을 도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경리단길은 망리단길, 송리단길 등 전국의 '~리단길' 열풍을 이끌어내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바 있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이전의 활기를 잃은 상태. <홍석천의 Oh! 마이로드>는 경리단길 터줏대감으로 알려진 방송인 홍석천 씨, 줄리안 씨의 진행과 상인들의 아이디어, 전문가의 조력,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골목 상권에 다시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과정을 약 두 달에 걸쳐 보여주었다.

노루페인트는 골목의 분위기를 새신하는 벽화 작업에 팬톤페인트와 전문시공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에 힘을 보태었다. 어둡고 산만했던 경리단길의 벽면은 팬톤페인트의 감각적인 컬러를 덧입으며 세련되고 멋진 작품으로 변신했다. 유명 아티스트 Bino & Last Boss, 공공 미술 그룹 아트리프(art leaf)는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벽화를 그려 넣었다. 페인트 작업 및 컬러 선정을 위해 노루페인트 하우홈 인테리어 을지로 매장에 직접 방문한 홍석천 씨와 줄리안 씨는 팬톤페인트의 다양한 컬러와 빠른 조색 기능에 감탄하기도 했다.

노루페인트 관계자는 골목 상권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

해 이번 경리단길 벽화 작업에 페인트를 후원하게 됐다고 밝히며 "젊은 자영업자들을 돋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쿨루프 페인트 캠페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사업으로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 21일,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및 쿨루프사회적협동조합(신년후연구소), 세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번째 기후 변화 선도 사업으로 쿨루프 페인트 캠페인을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LH가 보유한 110만 호의 임대주택 및 토지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LH와 쿨루프사회적협동조합 등 협약 기관은 기후 변화 대응 효과가 높은 선도 사업을 발굴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그 결과를 분석해 파급 효과가 큰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등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 안전 사회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표이다.



노루 하우홈, 3가지 멀티기능 '초고속 쿠킹 블렌더' 출시



참외 · 토마토 농가 더기반 연구단지 방문



협약식 종료 후 참석자들은 지역 주민, 고등학생 등과 함께 공동주택 옥상에 쿠링 페인트를 시공하여 기후 변화 선도 사업 1호의 의미와 효과를 재차 확인했다. 노루페인트는 2014년부터 산후연구소와 '화이트루프 쿠팅'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6년째 쿠링 페인트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다. 이제 '쿠링 페인트'하면 '노루페인트'가 자동으로 떠오를 만큼 노루페인트는 그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이어 왔으며 에너지세이버 쿠링 페인트로 뛰어난 기술력도 증명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앞으로 쿠링 페인트의 중요성과 효과를 더욱 널리 알리고 적용을 확대시킬 것이다.

노루 하우홈,

3가지 멀티기능 '초고속 쿠킹 블렌더' 출시

노루페인트의 토탈 인테리어 브랜드인 하우홈(HOWHOME)이 '초고속 쿠킹 블렌더'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부엌을 홈카페로 활용하며 직접 음료를 만들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클린푸드를 요리하는 등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30~40대 주부들의 니즈를 반영해 기획한 상품이다.

하우홈 초고속 쿠킹 블렌더는 하나의 블렌더로 가열, 진공, 분쇄의 3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재료의 특징에 따라 다른 컨테이너(강화유리, 트라이탄, 스테인리스 스틸)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화 유리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가열 조리가 가능해 수프, 이유식, 죽, 두유 등 삶아서 조리하는 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열판이 직접 가열되는 방식으로 모터가 돌지 않아도 가열되어 효율적이다. 젓병 소재의 트라이탄은 환경 호르몬 방출 염려를 차단해 준다. 분쇄에 특화된 스테인리스 스틸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딱딱하고 마른 재료도 곱게 갈린다. 딱딱한 얼음은 물론 건어물과 견과류 깁질까지 고르게 분쇄되어 빙수, 조미료 등의 메뉴를 만들 때 편리하다.

이 제품은 사용하는 용기에 따라 작동 모드가 달라지도록 자동 용기 감지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식재료와 접촉면을 늘린 6개의 칼날은 3D 입체 블레이드 방식으로 곱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분쇄한다. 대용량이라 4인 가족의 주스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데다가 주스, 스무디, 세이크, 견과류, 수프, 삶기 등 자주 사용하는 메뉴로 프로그래밍된 10가지 맞춤 레시피 기능은 버튼 하나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어 편리하다.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진공 블렌더

기능이다.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식재료를 분쇄하는 이 기능은 거품 발생, 갈변 현상, 층 분리를 막아주고 재료의 산화를 최소화하여 맛을 살리며 영양을 보존한다. 국내에 출시된 블렌더 중 최고급 사양이라 할 수 있다.

하우홈 관계자는 "과일, 채소 등을 갈아 음료를 만드는 용도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랜 연구 기간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라며 "진공 기술로 식재료의 영양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강조했다.

는 터라 농민들은 재배 과정에 궁금했던 점과 품종의 특성 등에 대해 연구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궁금했던 품종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 또한 참외, 토마토를 육성한 연구소장 및 R&D본부장과 각 품종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연구단지의 시설과 하우스 등을 둘러본 농민들은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품종들을 많이 선보여 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상생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전했다.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참외·토마토 농가 더기반 연구단지 방문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는 참외의 고장 성주와 토마토가 특산품인 부여 세도의 농민들이 각각 8월 23일, 6월 21일 더기반 안성연구단지를 방문, 견학하였다. 각 지역에서 더기반의 참외, 토마토 품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

영양제, 현명하게 챙기기

인간이라면 누구나 무병장수를 꿈꾼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장수'의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긴 노년 기간 동안 '무병'은 쉽지 않다. 그래서 각종 건강 기능 식품을 찾게 된다. 그중 종합 비타민 미네랄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 기능 식품이다. 그러나 과다 복용하면 좋지 않은 비타민도 있다. 영양제, 어떻게 먹어야 현명할까?

영양제, 꼭 먹어야 하나?

삼시세끼 잘 먹으면 굳이 영양제가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요즘의 정체 가공된 식품과 채소, 과일에는 과거보다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현저히 낮다. 카페인이나 청량음료 섭취는 그마저도 빼앗는다. 노년기에는 각종 질병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데, 이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있다. 현대인은 '칼로리는 과잉, 영양은 마이너스'인 상태. 영양제 보충은 현실적 대안이다.

꼭 챙기되 넘치지 않게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5)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 비타민C, A, 리보플라빈, 철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헬스조선」은 서울아산병원 등과 조사한 바를 통해 비타민D, 칼륨, 셀레늄, 오메가3, 엽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아이와 젊은 여성의 비타민D 수치는 매우 낮다. 영양제를 고를 땐 이 성분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자. 그러나 칼슘, 비타민D 등은 과다 섭취 시 심혈관질환과 골절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 비타민 A, E, K 도 과도하면 몸에 누적되어 부작용이 커지는 자용성 비타민이다. 대표 부족 영양소 중 과다 섭취를 조심해야 할 것의 일일 권장 섭취량, 혹은 충분 섭취량은 다음과 같다. 칼슘: 750, 비타민A: 750, 비타민D: 10, 비타민E: 12, 비타민K: 75 (단위:mg, 30~49세 남자 기준)

공복엔 유산균, 식후엔 비타민

영양제의 효율적인 흡수를 위해서는 식전, 식후, 아침, 저녁 등으로 구분해 먹는 게 좋다. 유산균은 식전 한 시간 전이나 밤 시간대의 공복에 먹어야 소화 효소에 영향을 덜 받는다. 자칫 메스꺼울 수 있는 비타민C는 식사 중이나 식후에,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 흡수를 높이기 위해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좋다. 칼슘은 한 번에 고용량을 먹기보단 아침,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게 신장 결석의 위험을 낮춘다. 오메가-3는 식사 직전에 먹는 게 부작용인 트림을 막아 준다.



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나니 (죽)더기반의 이름이 더욱 반갑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한 더기반의 도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자산업 경쟁력도 함께 발전할 것입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52호(비매품)

증정 : 정보간행물(계간) • 등록번호 : 안양 바00022 • 등록연월일 : 2019년 3월 15일 • 발행일 : 2019년 10월 18일 • 발행처 : (주)노루홀딩스
발행인 : 김동환 • 편집인 : 조용걸 • 기획 및 디자인 : (주)리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 사진 : URL 스튜디오 • 인쇄 : (주)대한프린터
발행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문의 : 02-2191-7700